

# 장흥군 신청사 건립 속도 낸다

### 2023년 준공 목표 건립기금 총 550억원 중 현재 200억 확보 내년 군민 대상 1차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이후 본격 추진 계획

장흥군 신청사 건립 5개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오는 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기금이 총 550억원 가운데 내년엔 50억원이 편성돼 이미 확보된 150억원을 포함 200억원에 달했다.

군은 지난 2016년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7년에 50억원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올해 100억원,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550억원을 확보해 2022년에 착공 2023년에 신청사를 준공할 계획이다. 군은 1차로 내년 중에 군민들을 대상으

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찬반의견과 공청회 등을 거쳐 찬성의견이 수렴되면 신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사는 현청사와 의사동 건물을 헐고 총 부지 9994㎡(3000여평)에 지상5층 지하2층(주차장) 규모로 전체 실·과·소와 의회까지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건립하고, 광장을 공원 형식으로 조성해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현 청사는 지난 1977년에 건립 40년이 넘어 노후화로 낡은데다 비좁아 17개 실·

과소 가운데 7개 실·과소가 외청에 분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차공간이 비좁아 군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신청사를 다시 건립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잡아 이전하든지 하는 여론이 10여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한편 장흥군 신청사 건립계획은 지난 2005년에 10개년 계획으로 수립했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백지화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 장흥군 '목제품 명패' 특허청 디자인 등록 결정

장흥군은 군 목재산업지원센터가 생산하는 목제품 명패가 특허청 디자인 등록이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만드는 명패는 다양한 그림을 레이저로 각인시켜 만든 제품이다. 최근 뛰어난 디자인과 상품성을 인정받아 인기를 얻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각 기관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명패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했으며, 올해 12월 최종 디자인 등록이 결정됐다. 이로써 장흥군은 명패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20년간 갖게 된다. 목재산업지원센터는 최첨단레이저장비와 자동화기계를 도입해 명패, 상패 등 다양한 목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엔



이를 활용한 탐볼러도 개발 중에 있다. 목공예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공예 기능인 양성반과 창업보육실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목재산업지원센터 내 갤러리 카페에서는 각종 전시회 등을 개최해 지역민의 목재산업의 이해 및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 강진 다산청렴교육 지역경제 효과 '톡톡'

### 공직자 교육 울 5600명 다녀가... 교육비 10억·농산물 판매 5000만원 소득



강진군 공직자 청렴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교육생들이 다산초당을 찾아 교육을 받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다산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청렴교육 프로그램이 전국 공직자의 필수 코스로 각광받으며 올해 5600여명의 교육생이 다녀갔다.

올해 교육비수입은 10억 5000만원이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한 농산물 판매수익은 5000만원에 이른다. 강진군은 앞서 '다산 정약옹'을 콘텐츠로 하는 강의와 현장체험,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한데 엮어 지역을 알리

고 소득을 창출하는 희망의 씨앗으로 키워냈다. 청렴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청렴교육을 운영, 2011년부터 지금까지 3만8000명이 훌쩍 넘는 교육생을 배출했다. 그 동안의 교육비 수입 또한 55억원에 이른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교육생 1명을 유치할 때 발생하는 수익 창출 효과는 평균 28만원으로 푸소체험 농가, 식당, 농산물 판매 등 교육생이 내는 교육비는 고스란히 강진군민에게 돌아간다.

교육프로그램 진행되는 과정이나 일과 후 관내 음식점, 특산물판매점 이용을 비롯해 각종 쇼핑으로 이어지는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농가와 연계한 딸기 수확체험, 토마토 수확체험 등을 운영했는데 교육생에게는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직접적 소득창출로 이어져 호응을 얻었다. 교육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열리는 농산물 판매 장터도 48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다산 청렴교육이 자타가 공인하는 우수 교육으로 전국에 알려지게 된 것은 군 직원들의 노력과 해설사님의 열정적인 해설, 강사님의 명품강의, 농가분들의 친절이 조화를 이뤘기 때문"이라며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또 한 단계 도약하는 2019년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다산박물관이 운영하는 청렴교육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공무원 청렴푸소(FU-SO)체험교육, 다산체험프로그램 등 크게 3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2019년 2월부터 교육생 모집을 실시한다. 교육에 따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다산박물관 교육홍보팀(061-430-36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 영암군,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워크숍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선포한 영암군이 최근 담양군 삼지내마을에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여성친화도시 주민 서포터즈와 여성친화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더 역량 강화와 마을 만들기 강의 및 체험으로 이뤄졌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서 모니터링하는 여성친화도시 주민 서포터즈들의 리더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 공

동작업을 하는 마을 대표 또는 주민들이 여성친화마을을 배울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해 8월 여성친화도시 주민 서포터즈 간담회를 시작으로 26일 여성단체 지도자 워크숍에서는 '여성들이 안전한 영암을 디자인하다', '함께 만들어요, 여성친화도시 영암!'의 슬로건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선포 퍼포먼스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다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 영암군,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우수기관 선정

영암군이 2018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교통부 주관해 지난 1999년부터 전국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의 적법 운영과 건축행정 건실화 정도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자료 5개 항목 19개 지표 중 특히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와 건축위원회의 투명한 심의결과 공개, 위반건축물 관리실적, 건축정책 이행도 등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영암군은 급변하는 건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공사 전담팀 조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노력 등 건축 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 편익을 위한 특수시책을 발굴해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문병선 기자 moon@

## 강진 '통일 트랙터 품앗이 운동본부' 출범

### 군농민회·이장단협의회 등 80개 시민사회단체·기관 구성 통일 의식 고취 교육·문화행사...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기대

남북 민간교류 추진 등을 위한 '통일 트랙터 품앗이 및 남북민간교류 강진군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군농민회와 이장단협의회·여성단체협의

회 등 80개 시민사회단체와 기관들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 13일 강진 파머스마켓 대강당에서 주민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선 황주홍 국회의원과 이승욱 강진군수,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 신대정 강진교육장이 명예대표로 추대됐다. 참여단체 대표들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가운데 민주평통 강진군협의회 이종현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6명이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운동본부는 이날 출범선언문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민간교류를 통해 이 땅의 평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군민

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민간교류 추진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운동본부는 향후 주민 1명당 1만원 후원하기 운동을 통해 통일 트랙터 2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문화행사 등을 개최,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